

투데이 칼럼

미 대선 후보들의 대북 정책

카탈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방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대선 후보 TV 토론에 참석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토론에서 북한에 대한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그동안 트럼프는 김정恩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해온 반면 해리스는 독재자와 맞설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 해리스는 처음엔 심지어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 대화에 열려 있는 바이든 정부의 실용적인 대북 접근법을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약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면 바이든 정부의 현 대북 정책과 유사한 노선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북한과의 관계에서 진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해리스는 북한과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바이든의 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할 수도 있다.

트럼프는 그동안 김정恩과의 친분을 강조해 왔고 자신을 거대한 전문가로 여긴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선될 경우 김정恩과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상회담을 통해 어떤 성



정복규
논설위원

과를 얻을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철회하는 대가로 김정恩에게 무엇을 제안할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는 토론에서 "지금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라"고 말했다.

또 지난 7월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자신이 재선되면 북한과 잘 지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해리스는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가 '독재자' 김정恩과 '러브레터'를 주고받았다고 비판했다. 해리스는 지난 8월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나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김정恩과 같은 독재자들에게는 친하게 굴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트럼프가 아첨과 호의로 쉽게 조종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지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바이든 정부가 수립한 현재의 대북 정책을 거의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의 문을 열어두고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제안했지만, 북한에 변화가 없다면 한국, 일본과의 국방 협력과 확산 억제력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 조정관은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그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훨씬 더 불확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김정恩과 다시 만난다면 어떤 종류의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어떤 합의든 큰 정책적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예측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바이든 정부 정책의

큰 윤곽은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정책과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해답보다는 의문과 불확실성이 더 많다"고 말했다.

전 북핵 6자 회담 미국 차석대표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김정恩과 접촉을 다시 시도할 것"이라며 "즉각적이고 검증 가능한 포괄적 비핵화보다는 신뢰를 쌓고 점진적으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한 다음 비핵화로 나아가는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지난 3년 반 동안 북한을 무시한 것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고, 북한 문제에 다시 관여해 대북 제재와 인도적 지원, 관계 정상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누가 당선되든 대북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전 미국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고,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과거 하노이 회담의 단순한 재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후보는 10일 방 토론에서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이것이 미국의 북한 비핵화 포기를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사설

시민단체의 동행 전국 캠페인

'세대 간 갈등', '고독사', '다문화', '기후변화' 등은 당면하고 있는 과제다. 정부도 예산과 정책적 뒷받침을 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집국의 시민단체가 한뜻이 되어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을 마련했다.

최근 170여 개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대국민 캠페인 '동행 : 대한민국을 잇다'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캠페인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및 공보국 산하 비정부기구 (사)하늘문 화세계 평화광복(HWPL)의 기획으로 시작했다.

'동행' 캠페인은 세 가지로 진행된다.

첫째, '세대를 잇다'는 기성세대와 청년 세대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크콘서트나 진행돼 세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고독사와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주변을 먼저 살피고 도와줄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

둘째, '문화를 잇다'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한다. 한국어 교육 지원과 문화이해 캠페인 등이 진행된다.

한국 생활 정착을 돕고, 다문화 자녀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미래를 잇다'는 환경 보호 등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추구한다.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포인트제 홍보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도시 텃밭 가꾸기를 통해 환경 보전과 기후변화 인식 제고 활동이 예정돼 있다.

캠페인 추진본부는 "지역별 당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사회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국 각지에 확산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시민 활동을 강화하기 바란다.

사전연명의료 사업의 역량 강화

사단법인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는 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웰다잉 교육 지도자 양성 과정을 9월 7일부터 7주간 운영한다. 이를 통해 28시간 수강자에 한하여 상담 자격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매일 상담사 보수 교육과 웰다잉 스터디를 통하여 상담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통하여 전문 상담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접근성 개선 및 맞춤형 상담 지원 인프라 확대 등을 위하여 세미나 개최와 지역 행사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접근성을 높이고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상담 활동을 위하여 방문 상담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에 앞서 사단법인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는 지난 7월 18일 광주,

전남, 전북의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비전인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과 유관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가 <2024년 전라권 거점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라권 등록 기관 단체 간 연명의료 결정 제도 연구 활성화, 대국민 홍보를 통한 정책 인지도 향상, 사업 관리 및 협력 체계 등 협력 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현장 활동가인 상담사 역량 강화 및 연명의료 결정 제도 이행의 실효성 향상에도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교제 폭력을 알고 계시나요

교제 폭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데이트폭력을 칭하는 말이다.

현재 시류는 사이, 연인이 되기 전 알아가는 과정 또는 이미 교제 관계를 정리한 이후에도 발생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이르는 말로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의 특징상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재발률 또한 높은 편이기도 하다.

하지만 교제폭력 범죄의 심각성과 반대로 교제폭력의 범위와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고,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점이 있지만,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범죄사실, 당사자간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정폭력처벌법 또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고 있다.

교제 폭력은 주로 본인과 관계있는 자로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기가 쉽지 않고, 지속되다 보니 이러한 위협을 폭

력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나와 교제하는 또는 교제를 했던 사람의 폭력성을 인정하지 않고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번뿐이었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교제폭력은 재범, 혹은 그 이후 추가 범행에 이를때에는 이전 범행보다 더욱 대발해지고 흉악해질 가능성이 높아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범죄임을 알아야한다.

경찰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마트폰 위치 지급, 임시숙소 이용, 주거지 CCTV 설치 등 안전조치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교제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다면,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 주저하지 말고 112에 신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구보민진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오타니 50-50 대기록 호외판 소장하자”



지난 20일 일본 도쿄에서 시민들이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가 메이저리그 사상 처음으로 60홈런-60도루를 기록했다는 내용의 스포츠 신문 호외판을 받고 있다. 오타니는 이날 마이애미 말린스를 상대로 3연타석 홈런 등 6타수 6안타 10타점 멀티 도루를 기록하며 51홈런-51도루를 기록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